

만찬사

오늘 팔만대장경 판각 1천년이라는 민족의 경사를 맞아 남과 북의 불교도들이 함께 기쁨을 나누는 자리에 참석해 주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를 마련하여 성대히 환영해 주신 조선불교도연맹 심상진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려대장경은 현존하는 세계 유일의 완전한 대장경이며 세계 모든 대장경의 모본이 된 인류의 보배입니다. 인류사적 가치를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오늘 남측 불교도의 방문은 대장경 판각 1천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선조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평화와 희망, 그리고 국난 극복의 의지를 되새겨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기에 더욱 의미가 각별하다고 할 것입니다.

대장경에 담긴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 민족이 서로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원합니다. 더불어 남과 북이 더욱 더 자주 만나고 대화하면서 민간차원의 교류를 비롯한 여러 협력 사업을 원활히 지속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자주 만나 회의를 하고 의견을 나누는 민족은 쇠망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우리 불교도들이 민족문화의 보존과 계승에 앞장서 교류와 협력에 진전을 갖으며, 남북의 화해와 협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장경 판각 1천년이 민족의 화해와 번영에 큰 기틀을 만드는 해가 되기를 바라며, 다시한번 평양 방문을 환영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5년 9월 3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